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의·행복·성공 에너지의 나눔터, 충남

이 병 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bwlee@naver.com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전) 한화케미칼 상무
(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충청남도는 유수한 서해안 관광지를 갖고 있으며 금산 인삼 등 다양한 특화 농산물이 발달하였다. 또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이며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국가 수출주력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특히 석탄화력 기반의 발전소 26기가 운영되어 2013년 기준 국가 전체 유연탄 설비의 25%,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49.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은 전력자립도가 400%가 넘는 등 국가 전력공급의 핵심지이면서 화력발전 이외에도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집적되어 있어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생산전력의 약 63%를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공급함으로서 충남은 국가 에너지산업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결국 충남의 역설적 에너지 여건은 국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전략과 병행하여 가장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3농혁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농림수산업 수출이 전국 3위 수준에 이른다. 특히 국내 인삼 제조업체 중 충남의 비중은 약 69.2%(456업체, 2012년)이며,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미국 등 79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등 특화산업이 발달되었다. 충남은 3농혁신이 3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등 농어업 6차산업 활성화가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풍부한 토지와 자원을 보유, 농업기반 여건이 튼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연간 농가소득액은 전국 7위 수준으로 높지 않다. 농수산 분야 범용화 탈피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도약기반이 필요하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과 6차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창업기업 발굴, 강소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해외진출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정책에 기여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후방산업 기반과 친환경적 지역발전 측면에서 대기업과-중소기업-지역민이 상생 성장하는 전략과도 부합한다. 6차산업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화는 충남도 핵심 추진전략과 관련된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농수산 산업을 연계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기대한다. 이제 목표달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흥미로운 과업들을 살펴보자.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은 크게 세가지 과제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태양광 응용제품 창업을 전주기 지원해주는 사업,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

성,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양광 벤처단지 조성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다.

태양광 응용제품 창업 전주기 지원 사업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신 시장 창출을 지향한다. 태양광 응용제품은 발전, 제조, 서비스, 농림수산업 등 모든 산업의 융복합을 고려해 발현되는 재화를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태양광산업은 전력을 생산하는 무한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이용해 전통적인 발전업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인식된다. 그러나 전력이 공급되는 수많은 제품을 생각하면 태양광산업은 단지 발전업의 범위를 쉽게 뛰어 넘는다. 빛이 잘 드는 태양광 정원, 캠핑지의 텐트와 렌턴, 자동차와 자전거, 각종 조명등, 소규모 인체 탈부착 디바이스들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 다양한 응용제품들이 존재한다. 저장장치가 뒷받침되면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충남창조경제센터는 태양광 응용제품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정기 공모전과 경진대회를 추진하며, 충남테크노파크 생산관에 시제품제작터를 마련하여 창업기업의 진출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라이브러리 및 솔라샵구축을 통해 정보획득과 판로개척도 도모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양한 응용제품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초중고, 대학생과 일반인들의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 과제는 화제가 된 죽도 에너지자립섬 실증사업으로 대표된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에 위치한 면적 0.17㎢의 유인도 죽도는 찾아가고 싶은 대한민국 10대 섬으로 뽑히고 지상파 프로그램에도 소개되는 등 서해안의 명소로 떠

그림 1. 태양광 응용제품 시제품 제작터, 천안센터

그림 2. 죽도 조감도와 태양광 발전소 조감도

오르고 있다. 충남창조경제센터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독립발전, 기존 디젤발전을 포함한 마이크로그리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죽도를 100% 신재생에너지 자립섬으로 구축하고 있다.

죽도 에너지자립섬 실증사업은 6개 역내 중소기업이 참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죽도 실증사업은 7월 3일 착공식을 거쳐 2015년 말까지 시설공사 완료, 이후 시운전과 안정화를 거쳐 2016년 4월 준공될 예정에 있다. 죽도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디젤발전의 신재생 전환이 가능해 연간 소나무 41,000그루 규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유류비 절감분은 클린캠핑장 구축, 주민들의 공동사업 섬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죽도 실증 사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섬 견학, 드론 죽도 촬영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기획이 병행된다면 관광객 유치, 특화 농수산품 판매를 통해 주민 소득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실증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자연스럽게 충청남도의 신재생에너지섬 확대가 추진될 수 있다. 또한 내륙으로의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증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확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대기업-중소기업-지역민-지자체가 상생·협력하는 우수모델로 발전시켜 해외진출을 이룬다면 신재생에너지 연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가 기대된다.

세 번째는 서산 태양광 벤처단지 조성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과제로 한화의 벤처단지 조성 투자와 지역 특화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과제이다. 서산 태양광 벤처단지는 메인센터 조성, 연관 공용설비 구축을 2015년 말까지 완료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들의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태양광 벤처단지는 창업기업들의 사업진출 경로로 활용 가능하며, 글로벌 해외진출을 위한 허브로서 작동할 예정이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은 6차산업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수산품 명품화 육성은 디자인 개선, 스토리텔링, 품질인증 및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멘토단을 운영하여 시장 진입에 적합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상품성 개선에서 판로확대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디자인 개선을 위해 "화목한 디자인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주 화, 목요일에 혁신센터 디자인 공작소에서 디자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포장방식과 포장디자인 개발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서 농수산 제품이 명품화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기획 컨설팅은 생산지의 역사와 환경, 문화적 가치 등과 같은 상품에 얽힌 이야기를 가공 포장하여 프로모션에 활용한다. 감성 지향적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애뜻한 인상을 심어줘 홍보와 판매개척 최적화를 도모한다.

농수산품이 안전한 먹거리 제품으로 인증 받기 위해 농수산품의 품질인증, 생산인증 및 친환경 인증에 대한 전체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내 6차 산업 우수인력 양성 및 관련지식 습득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센터 주관으로 운영하여 향후 6차 산업 분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6차산업 농수산품의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 체계를 통해 창의성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수산물 명품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6차산업 명품화는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중소벤처기업 발굴·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글로벌 진출 지원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무역존을 통한 해외수출 지원과 GEP(Global Expansion Program)을 이용한 창업기업 발굴·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운용한다.

무역존은 17개 지역창조경제센터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도록 천안아산역 비즈니스센터 내에 설치하였고, 코트라와 무역협회 전문가가 상주한다. 무역존은 KOTRA 해외무역관 발굴 바이어들과의 사이버 상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센터가 발굴한 유망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무역협회는 한화무역과 함께 전문 무역상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 센터가 발굴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GEP 프로그램은 해외 사업화 가능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한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해외사업화를 추진한다. 한화금융네트워크를 통해 조성된 글로벌 사업화 펀드는 GEP 프로그램에 의해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사업화 지원에 투자될 계획이다. 현재까지 GEP 프로그램에 의해 3개 업체를 발굴·해외사업화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3차례의 GEP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까지 약 25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 해외사업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창조경제센터의 추진사업들은 다양한 성과창출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된다. 매년 2회씩 태양광 응용제품 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전, 디자인 공모전이 진행되고, 창업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약 150명의 멘토단이 투입된다. 아이디어·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제작터 운영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수요피칭데이 운영, 그리고 창조경제혁신포럼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혁신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충남 TP 지역 Fast-Track 사업화 과제, 6+ 챌린지 플랫폼 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외에 충남지역 대학창업동아리 포럼, 예비창업자 네트워킹,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협의회, 충남창조경제혁신포럼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히 펼쳐질 예정이다.

충남창조경제센터는 지역의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역민이 상시 자유롭게 방문하고 소통하는 장소로 발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충남센터는 창의·행복·성공 에너지의 나눔터 충남을 지향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남 지역의 옛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새 먹거리를 찾아내어 태양광 사업의 글로벌 진출 허브로 발전하고, 지역민과 중소벤처기업들의 나눔터가 되고자 한다.